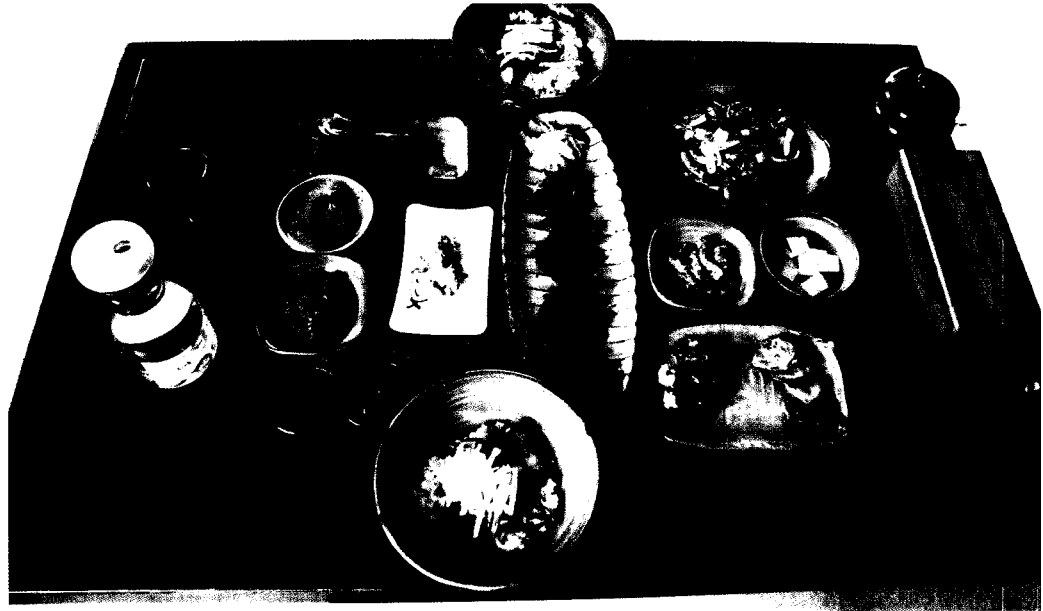


지리산 우천정

바쁘고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생활의 탄력을 찾으실
수 있는 곳
지리산 덕산 관광휴양지에
위치한 [우천정]을
소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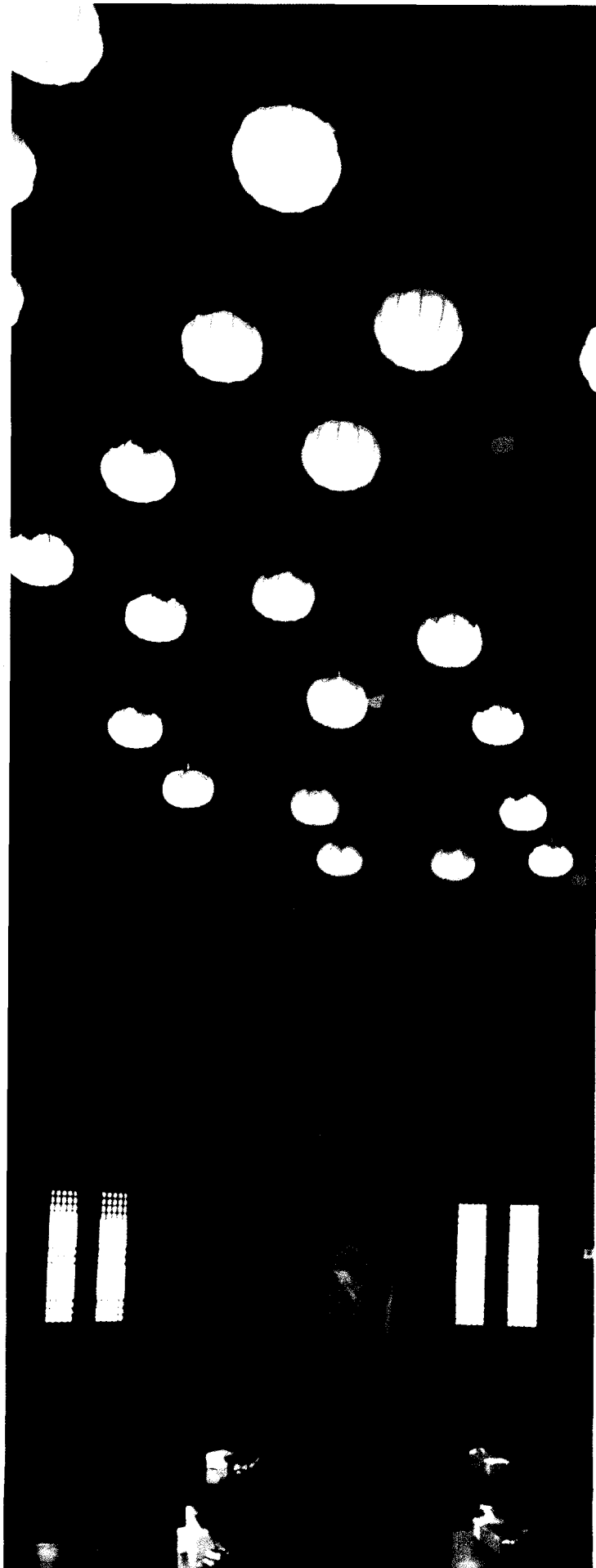


양수 발전소에서 지리산 중산리 매표소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나지막한 언덕위로 버섯모양의 황토 집을 만나게 된다.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에는 오랜 세월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영롱한 아침이슬을 먹고 자란 약초가 산재한다. 이런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여 우천정에서는 멧돼지 바베큐와 염소고기·한방약초를 첨가한 한방수육 그대로의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는데, 지리산을 버무려 놓은 듯 무공해 산나물의 산채 비빔밥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우천정에서는 감 껍질을 깎아 자연건조 시켜 높은 당도를 가진 쫄깃한 꾀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감 말랭이와 직접 채취한 머루액기스·지리산 빵 소금·지리산 고로쇠 등의 특산물 코너가 있어 선물용 상품을 구비한 가게로도 인기가 높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외식업체 부럽지 않은 내부시설은 과연 여기가 지리산



골짜기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다.

또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빛소금 짬질방' 과 체육 시설 그리고 가족이나 단체가 쉴 수 있는 콘도형 숙박 시설 등은 지리산을 찾은 이들의 휴양시설로 손색이 없다.

해발 1,750m에 위치해 있는 장터목 바로 아래에 있는 산희샘에서 시작된 법천계곡은 법천폭포·유암폭포를 비롯하여 소(沼)와 담(潭)이 곳곳에 있어 교향악 같은 우람한 소리와 실내악처럼 고요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산리 계곡과 그 계곡들을 끼고 소곤거리듯 바위틈을 흐르는 청정한 물소리와 더불어 비구니들의 맑은 미소를 벗하는 대원사가 있다. 선계로 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대원사 가는 길은 완만한 계곡과 금강소나무(강송·춘양목)라 불리는 아름답드리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여행의 도중에 하루 묵어 갈 객점을 어디로 정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행지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주변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거움을 한 아름 담아갈 수 있는 우천정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사랑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맛과 시설을 갖춘 우천정이라면 틀림없이 편안한 휴식과 멋진 여행이라는 추억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부장 : 김도원]

✦ 우천정 Tel.(055)974-3838
H.P.011-838-4426

